

## 경남건축사회, 제9회 경남건축대전

대상에 「Stream and Alteration」



경남건축사회에서는 99건축문화의 해 경남지역추진위원회가 후원한 제9회 경남건축대전을 개최하고 지난해 11월 11일 시상식을 가졌다. 일반공모 부문에 86작품과 회원공모부문에 6작품이 출품되어 심사한 결과 일반공모 부문에서 대상은 최승호, 안승호(경남대)의 'Stream and Alteration'이, 최우수상에는 신동일, 황성운(인제대)의 '꽃과 도심'이 선정되었다. 이밖에도 우수상2점, 특선 6점, 입선 20점이 선정되었다. 회원공모부문에 고성군수가야유물전시관(이상건축), 경남도립미술관(서진건축), 갑을가든(두양건축) 등이 금상으로 선정, 수상되었다. 심사는 오인환(경상대), 서유석(창원대), 이호열(밀양대), 이강제(창신대), 주우일(거창전문대), 최명구(경남도청 주택과)씨가 맡았다.

## 건축계소식 archi-net

### 건축사법중 개정법률 공포 예정

국회 본회의 통과

건축사법중 개정법률(안)이 제15대 국회본회의 제209회 제1차 임시회의('99. 12. 28)에서 승인되어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였으나,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자격제로 일원화 함.(제2조제1호 및 제7조)
- ▷ 건축사는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협회에서 회비징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폐단이 커 이를 폐지함.(제22조 삭제)
- ▷ 건축사사무소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5년마다 사무소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등록갱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제23조 제1항 및 제7항)
- ▷ 건축사협회의 설립 및 회원가입을 자율화하여 경쟁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제31조 내지 제33조)  
(이번호 92 쪽 참조)

## 건축교육 및 건축사제도 개선을 위한 2차 공청회

1월 14일(금) 오후 1시,  
대한건설협회 대강당에서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하고 우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공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19, 20일에 열렸던 '건축교육, 건축사제도 개선 및 건축교육인증원 발족을 위한 1차 공청회'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WTO체제에 대비한 건축교육 및 건축사제도 개선을 위한 2차 공청회'다. 이 공청회는 건축교육, 설계실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건축교육의 국제화 및 국내건축사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주요명제하에 건축 3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하였다. 지난 1월 14일(금) 오후 1시부터 대한건설협회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대한건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마련된 건축사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들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건축학회가 제시한 개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의 건축학과(설계전공) 교육연한을 현행 4년제에서 외국과 같은 수준인 5년으로 연장하고, ▷ 대학건축학 교육의 인증을 위하여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건축교육인증원」을 설립하며, ▷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은 학부에서 건축설계전공과정 5년을 이수하거나 대학원에서 건축설계전공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자로 제한하며 실무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등 국

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건축실무훈련, 등록건축사의 관리, 건축사시험운영 등을 담당할 한국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6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국제건축가연맹(UIA)총회에서 「건축사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채택됨으로써 건축설계시장의 개방에 대한 국가간 협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국내건설 설계시장을 지키고 건축사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건축사 관련제도의 대대적인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관계전문가와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 차원의 「건축사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발표는 교육제도개선에 대해 임창복(성균관대 교수), 교육인증에 대해 박한규(전북대 교수), 건축사제도 및 보완에 대해 이관영(한인건축), 건축사 시험제도에 대해 김영섭(건축문화)씨가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호진(건축대 교수), 김광현(서울대 교수), 조용수(동아대 교수), 전영일(동국대 교수),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이상준(까지건축), 이종호(메타건축), 류재현(세민재단), 이영근(건교부), 최수태(교육부)씨 등이 참여했다.

## 2000년도 제7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커미셔너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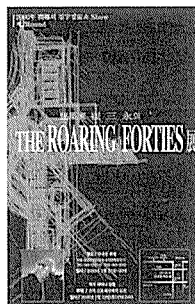
김석철(아키반건축)회원 선정

2000년도 이태리 베니스시에서 개최되는 제7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커

미셔너로 김석철(아키반건축, 56세) 회원이 선정됐다. 제7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은 '도시(CITTA: LESS AESTHETICS, MORE ETHICS)'를 주제로 하여 2000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여 개최될 예정이며, 건축전 총감독으로는 이태리 건축가인 마시밀리아노 푸카스(Massimiliano Fuksas)가 맡게 된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원장 차범석)에서는 전시주제에 맞춰 건축전 참가의 한국관 커미셔너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말 총 10인의 한국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전 참가의 기본방향 등에 대한 깊은 토의를 거쳐 김석철회원을 커미셔너로 최종 선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커미셔너로 선정된 김석철회원은 95년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건립설계자로서 그간 예술의 전당, 서울 2000비전플랜 수립 등 다채로운 작품 경력을 통해 새로운 천년을 맞는 첫 번째 건축전의 한국관 커미셔너로 최적의 적임자로 선정됐다. 제7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의 전시주제, 총감독의 제안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베니스비엔날레 인터넷 사이트(www.labiennale.org)를 참고하거나 문예진흥원 문학미술팀(전화 02-760-4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 2000년 간향의 집우 집우 쇼SHOW

1월 7일부터 3월 5일까지



월간「건축인 poar」에서는 2000년 3월호로 창간 4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한 '집우 집우 쇼SHOW'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1월 7일 제1라운드 건축인poar in place전을 시작으로 제4라운드 2042 도시패러다임의 스펙트럼전을 3월 5일까지로 약 2개월동안 진행된다.

### >1라운드:건축인poar in place전

월간 건축인 poar의 출생을 전후한 간향(間鄕)의 배경과 이후 현재까지 만 4년에 걸친 건축언론로서의 길을 뚫으며 발생시켰던 문화의 생산구조를 일반에 공개하는 전시. 건축저널의 새로운 대중적, 사회적 평판을 이끌어온 간향의 미디어세계관이 펼쳐진다.

- 일시: 2000년 1월 7일~16일(10일간)

- 장소: 김내현 갤러리

- 비평가: 김병운(백제예술대 건축과 교수)

### >2라운드: 건축가 최삼영의 the roaring forties전

비주류 건축가의 독립전. 그는 거친 풍량위의 건축가 모두를 비주류로 해석한다. 특별한 배경도 없이 독립한 40대 건축가가 건축방학기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비장한 세계를 보여준다.

- 일시: 2000년 1월 21일~30일(10일간)

- 장소: 김내현 갤러리

- 비평가: 김정후(스튜디오 O.N.E.대표)

### >3라운드: 건축가의 패션(the architecture fashion)전

건축가들에게 못짓기를 주문하는 사회. 건축가는 패션을 통하여 또 하나의 건축만들기에 몰입한다. 실용성으로부터 이념형의 옷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전시장에서 2000년 벽두에 건축가가 내지르는 다양한 스타일과 정신성의 세계를 실험하는 일군의 건축가를 발견하게 된다.

- 일시: 2000년 2월 11일~20일

(10일간)

- 장소: 김내현 갤러리

- 비평가: 함성호(시인, 스튜디오 이온 대표)

### ▷4라운드:2042도시패러다임의 스펙트럼전

GAIA projects전 이후 만 2년만에 선보이는 건축가 조택연의 미래건축전. 동서양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2042년의 공간을 관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건축가의 전망을 보여 준다.

- 일시: 2000년 2월 25일~3월 5일 (10일간)

- 장소: 김내현 갤러리

- 비평가: 이종건(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전진삼(코디네이터, 건축발전연구소 소장, 02-2637-3890)

## 제3회 아시아 건축교류 국제심포지엄

「신세기의 아시아 건축의 도전과 역할」주제로

오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대학교에서 「신세기의 아시아 건축의 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3회 아시아 건축교류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지난 이십여년동안 아시아의 건축은 보존과 개발, 전통과 개혁, 그리고 지역주의와 글로벌리즘의 상반된 이슈 속에 혼란이 거듭되어 왔고, 이러한 혼란은 현 시점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건축디자인과 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천년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철학을 정립하고자 대한건축학회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아시아 건축교류 국제심포지엄은 일본건축학회의 제안으로 1986년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10여년간 활동이 없다가 지난 1998년 9

월 일본의 고베대학에서 한·중·일 대표단을 포함하여 아시아 각국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축학회, 중국건축학회와 일본건축학회는 이 심포지엄을 격년제로 정례화하기로 협약하였으며, 제3회 대회를 한국이 주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의 공식언어는 영어이다.

### 분과별 주제

- 제1분과 전통건축과 아시아적 가치
- 제2분과 노령화시대의 건축
- 제3분과 환경친화적 주거의 설계와 기술
- 제4분과 정보화 사회와 도시건축
- 제5분과 초고층건축과 신기술
- 제6분과 지속가능한 재료와 시공기술
- 제7분과 21세기의 건축교육과 실무

### 심포지엄 일정

- 2000년 2월 23일(수) 오후 : 등록 및 환영리셉션
- 2000년 2월 24일(목) 오전 : 개회식 및 기조연설, 오후: 초청강연
- 2000년 2월 25일(금) 종일 : 각 분과별 심포지엄, 저녁: 만찬
- 2000년 2월 26일(토) : 제주도 및 서울의 건축 및 문화관광(선택)

### 등록비

- 일반: 100,000원(논문집 및 점심, 만찬 제공)
- 학생: 50,000원(논문집 및 점심 제공)
- 동반자: 50,000원(환영연, 만찬 제공)

문의: 전화 02-525-1841~4, 525-1846

홈페이지

www.aik.or.kr/asia/asia.html

## '99건축문화의 해 폐막식

지난해 12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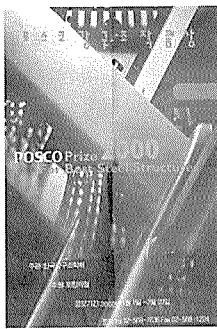


「삶의 터전, 문화의 바탕」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999년 한해동안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건축의 문화적 본질을 일반시민에게 이해시키는데 노력했던 '건축문화의 해'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99년 건축문화의 해 지정과 함께 조직위원회는 국가이미지 세계화를 위한 밀레니엄사업 방향제시, 한국건축문화의 위상 정립으로 정체성 및 보편성 확보, 건축에 대한 인식제도를 위한 건축문화운동 전개, 건축문화자산의 조사·체계화를 통해 관광자원화 추진이라는 4대 사업계획을 설정하여 진행했다. 많은 격려와 비판속에서도 우리협회가 주최한 '아카시아포럼 10'을 비롯하여, '한국현대건축 100년전', '특별기획전', '건축문화엑스포' 등 굵직한 행사와 '내가 가꾼 우리마을 콘테스트', '건축문화자료관 건립기반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치루진 지난 한 해는 일반인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건축의 본질을 이해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전개되었다. 특히 '한국건축 100년전'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 근·현대건축에 관한 각종 자료와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한국건축학연구'의 토대가 되고 일반인의 한국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폐막식 행사는 1년동안 치루졌던 주요행사를 담은 영상물을 상영하고, 공로자 시상식 및 밀레니엄 건축비전 선언 등

의 내용으로 꾸며져 새 천년의 건축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조직위원회는 건축의 본질상 1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지난 1년은 건축문화의 토양을 다지는 해였다고 보고, 그 정신을 이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시상식에서 우리 협회 이의구회장은 문화관광부장관 공로패를 받았다.

## 2000포스코 강구조 작품상

2월 28일까지 접수



한국강구조학회에서는 강구조 기술의 창의력을 배양시키고 철강 이용 기술을 개발시킴으로써 우수한 강구조물 건설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2000 POSCO 강구조 작품상」을 개최, 작품을 모집한다. 응모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강구조물(건축물, 교량, 철탑, PLANT, 해양구조물 등)이어야 하며, 신청서(소정양식)1부와 기본설계도면(10매이내)1식, 그리고 신청작품의 사진(5×7 컬러판 3매)1식을 오는 2월 28일까지 강구조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에 대해 상패와 부상이 수여되며, 수상작 설계자에게 해외건축학의 특전도 부여된다. 발표는 4월중에 있을예정이다. 문의 : 한국강구조

학회 사무국 02-568-7636

## 스틸하우스 골조시공교육자 모집

2월부터 15회에 걸쳐 실시

한국철강협회 스틸하우스클럽에서는 포항제철 후원으로 전문 스틸프레이머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2000년 2월부터 연 15회에 걸쳐 실시하며, 스틸하우스 골조 시공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 교육인원 : 1회 교육시 20명 내외 선착순
- 교육기간 : 10일간/1회(월~금/2주간)
- 교육내용 : 이론+실기(골조조립 및 설치)
- 교육일정 : 제1차-2월 7일~18일  
제2차-3월 6일~17일  
제3차-3월 20일~31일  
제4차-4월 10일~21일  
제5차-4월 24일~5월 4일  
제6차-5월 15일~26일
- 교육장소 : 경기도 기흥 스틸하우스 연구동
- 준비물 : 공구벨트, 줄자, 망치, 안전장갑, 안전화, 안전안경, 작업복, 필기도구, 개인필수품 등
- 참가신청 : 연간신청/선착순(팩스나 유선 가능)
- 문의 : 전화 02-559-3585/3582  
팩스 02-559-3588

## 희림건축, 공모주 청약

코스닥등록 임박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이영희)는 코스닥등록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158.14대 1로 최종집계됐다. 지난 1월 12일 공모주 청약이 끝난 희림건축은 8만주 배정에 1265만주 이상이 청약되어 청약대금이 1265억원을 넘었다고 주간사인 현대증권이 밝혔다. 증권사별로는 현대증권이 176.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대우증권이 213.3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외에 교보증권 104.21대 1, 부국증권 143.79대 1, 동부증권 115.04대 1, 한진투자증권 96.46대 1, 대신증권 184.30대 1, 신한증권 124.52대 1을 나타냈다. 이는 건축사사무소로는 처음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여 코스닥등록을 앞두고 있는데, 건축경기 활성화와 함께 건축계의 큰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 대한건축학회, 방배동 신축회관 설계경기

1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방배동에 새 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한다. 이는 미래지향적 학회발전방안의 하나로 새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새로운 건축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중심의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복지시설, 상설전시장, 교육공간, 업무지원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이번 설계경기는 대한건축학회 정회원으로 건축교육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사무소 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와 합작도 가능)이면 가능하다. 오는 3월 31일 마감이며, 4월 7일 심사를 거쳐 4월 11발표될 예정이다.

### 충남 좋은 건축물 33개 선정

99건축문화의 해 충남지역추진위원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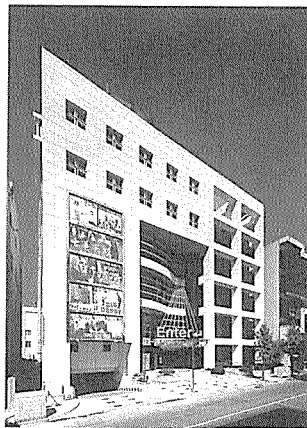
99건축문화의 해 충남지역추진위원회(위원장 박홍우)에서는 지난해 12월 18일 충남도내 건축물 중 작품성이 뛰어나고 시대상황을 잘 반영한 충남의 좋은 건축물 33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건축학과 교수, 건축사, 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고 현지답사를 거쳐 전통, 근대, 현대 등 3부문에 걸쳐 총 33개건축물이 선정된 것이다.

- 전통건축물: 수덕사 대웅전(예산 덕산면), 개심사(서산 운산면), 홍주성 조양문(홍성읍), 장곡사(청양 대치면), 돈암서원(논산 연산면), 윤증고택(논산 노성면), 추사고택(예산 신암면), 공주향교(공주 교동), 영암택(아산 송악면)
- 근대건축물: 대전외국인수련원(보령 신흥동), 금사리 성당(부여 구룡면), 상흥리 공소(서산 음암면), 구합덕성당(합덕읍), 구호서은행예산본점(예산읍), 북옥 감리교회(강경읍), 영명학교 구본관(공주 중동), 장항제련소(장항읍), 공세리 성당(아산 인주면)
- 현대건축물: 독립기념관(천안 목천), 교보연수원(천안 유량동), 국립부여박물관(부여읍), L씨주택(당진읍), 신도리코(아산 남동), 합덕재(합덕읍), 당진수협(당진읍), 소망교회(태안읍), 순천향대도서관(아산 신창면), 학봉교회(공주 반포면), 인삼종합처리장(금산 부리면), 남서울

대 화정관(천안 성환읍), 북일여고(천안 신부동), 신우빌딩(천안 성정동), 홍익대국제연수원(조치원읍)

### 제7회 광주시 건축상

금상에 「엔터테마빌딩」, 우토건축 박홍근 설계



엔터테마 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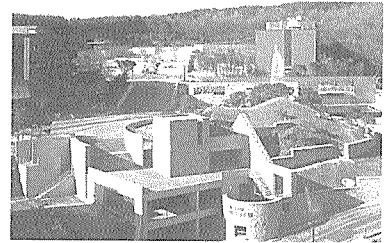
제 7회 광 주 시 건 축 상 금 상 에 「ENTER테마빌딩」(우토건축/박홍근 설계)이 선정되어 지난해 12월 1일 시상됐다.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광주시 건축상'은 건축인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광주 동구 충장로 5가에 소재한 금상을 받은 「엔터테마빌딩」은 도심지의 복잡한 대지 상황과 도시적 상황을 고려해 지나가는 시민을 위하여 건축물을 후퇴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도시공간에 활력을 주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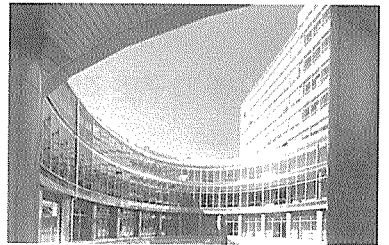
은상은 '광주 D빌딩' (토방건축/한진수)과 '상무고등학교' (프러스 건축/조두상)가 선정됐다.

### 제10회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대상에 대한생명 용인중앙연수원



종합대상 / 대한생명용인중앙연수원



건축부문 / 기상청청사

문화관광부와 한국경제신문사는「제10회 대한민국 환경문화상」시상식을 지난해 12월 20일 개최했다. 종합대상과 4개부문 수상작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대한민국 환경문화상은 지난 90년에 제정된 이후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건축, 실내디자인, 조경, 환경조형 작품에 대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제10회 대한민국환경문화상에는 전국에서 응모된 총 32점의 작품을 건축부문에 김복수(여성건축가협회장), 조병수(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실내디자인부문에 김시행(한국경제신문 문화부장), 박영순(연세대 생활과학부 교수), 권영걸(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환경부문에 최만린(서울대 조소과 교수), 이종각(경희대 교수), 강은엽(계원조형예술대 교수), 조경부문에 정재훈(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단장), 박경자(서울시 문화재위원)씨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의 서류와 현장 그리고 최종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됐다.

· 종합대상/대한생명 용인중앙연수원 (건축문화-김영섭)

· 건축부문/기상청청사(원도시건축-

변 용)

- 실내디자인부문/아티누스(에시스)
- 환경조형부문/선의 공간(스튜디오 최재은)
- 조경부문/인천국제공항 남측외곽공원(삼성에버랜드)

## 제8회 국제 알바알토 심포지엄

제로시대의 건축 주제로

알바알토 아카데미(Alvar Alto Academy)가 주최하는 국제 알바알토 심포지엄이 오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핀란드의 지바스키라 대학에서 개최된다. '제로시대의 건축(Architecture in the year zero)'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새 천년의 시작을 제로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논의와 함께 알바알토가 설계한 건축 작품을 답사하고 강의, 세미나, 토론 등으로 그의 디자인경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참가인원은 600명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숙박비를 포함하여 235달러이며, 학생은 95달러이다.

문의: 알바알토박물관 (전화358-14-624811, 팩스358-14-619009, 전자우편marjo.holma@jkl.fi)

## 경기대건축대학원, 그렉파스 쿠이렐리 강연회

1월 28일, 경기대 건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에서는 오는 1월 28일(금) 오후 4시에 건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건축가 그렉 파스쿠아렐리의 강연회를 개최한다. 그렉 파스쿠아렐리는 SHoP건축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콜롬비아대학의 스튜디오 튜터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Responsive Methodologies'라는 주제로 최근 진행 중인 자신의 작품과 건축관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문의: 경기대 건축대학원(전화 02-390-5245)

## 현상설계, 서울시립북부노인전문요양 병원

당선에 공간(이상림, 정종영)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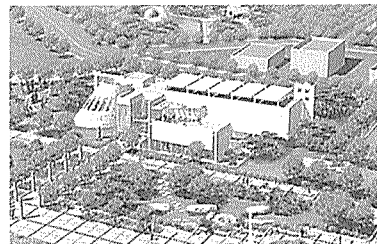


서울시에서는 인구노령화에 따라 전문요양병원의 필요성에 따라 그와 관련한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해 12월 22일 공간종합건축(이상림, 정종영)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장기입원자들을 위한 병동배치와 실내공간의 분위기를 가정과 같이 안정적이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설계의 관건이었다. 심사는 김성우(연세대), 서봉교(경원대), 민선주(위가건축), 권

기혁, 이특구(서울시립대), 강병근(건국대), 장성준(명지대), 홍갑표(연세대), 신관섭(쌍용건설), 제해성(아주대), 김근우(강남병원)씨 등 11명이 맡았다. 우수작에는 정림건축(김정철)안이, 가작에는 무영건축(안길원)안, 그룹신도시건축(홍기백)안, 위드건축(서상문)안이 각각 선정됐다.

## 현상설계, 성호이익선생 기념관

당선에 건우사종합건축+시공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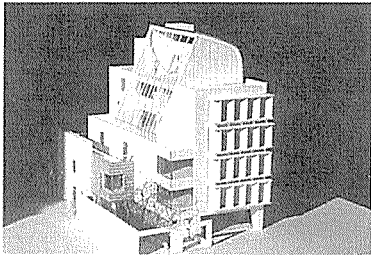


경기도 안산시시는 성호이익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사상을 전시하는 기념관을 건립하고 주변 문화재를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의 교육 및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될 기념관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한 결과 건우사종합건축과 시공테크의 공동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심사는 정승우(안산시), 양내원(한양대), 이순희(안산1대학), 한명수(예도건축), 백영권(도시건축), 서흥권(안산공업대), 이현우(안산문화원), 박종원(안산시의회), 최화영(안산시)씨 등이 맡았다. 당선작은 기념관, 이익선생묘, 식물원을 하나의 테마로 설정하여 학자가 많이 배출되는 안산시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잘 표현한 점과 호롱불을 현대적으로 변형시켜 매스이미지를 강조하였고, 관리영역과 전시영역의 뚜렷한 분리에 의해 명확한 동선이 돋보인다는 평을 얻었다. 지하1층, 지상1층의 규모로 오는 7월경

착공예정이다.

## 현상설계, 홀트일시보호소

당선에 울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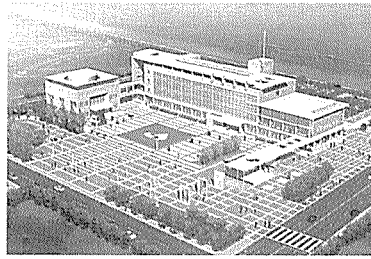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입양전의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고 입양아들의 모국 방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갖춘 홀트일시보호소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지난해 12월 10일 당선작에 울건축(김중대)안을, 우수작에 예상건축(송재춘)안을, 가작에는 더부건축(김상오)안을 각각 선정했다.

당선작인 울건축안은 안락한 마당을 조성하여 외부인이 내부로 진입할 때 따뜻한 집을 연상하도록 하는 점을 설계의 주안점으로 두었으며, 1층은 관리실, 2층과 3층에는 보육시설, 4층에는 모국 방문자를 위한 숙소로 계획했다. 홀트일시보호소는 국내외에서 모인 16억의 기부금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 현상설계, 임실군청사

당선에 울그룹건축+건인건축

전라북도 임실군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열린청사로의 도약을 위해 임실군



청사 신축 현상설계를 실시하여 당선작에 울그룹건축(최기주)과 건인건축(이정호)의 공동안을 선정하였다. 우수작에는 길건축(이길환)안이, 가작에는 윤림이토건축(윤종호)과 원도시건축(변웅)안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는 정명현(홍익대), 송성진(연세대), 김홍식(명지대) 박한규(전북대), 정사희(원광대), 강대호(전주대), 문창호(군산대), 최창한(임실군), 안향선(군의회)씨가 맡았다. 당선안은 주요 업무 공간을 남향에, 업무보조 공간을 후면에 각각 배치하고, 중앙에는 아트리움을 도입하여 환경친화형 실내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정명현 심사위원장은 당선안에 대해 "보행자를 위한 입면 이미지를 반영하고자 저층형을 도입한 점과 커튼월을 도입하여 권위감을 피하려 한 점 등 균형의 기존 이미지를 탈피한 점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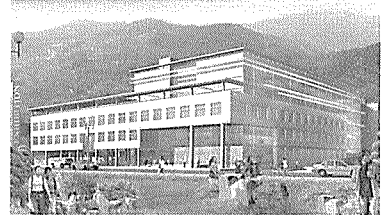
정정합니다.

▷ 1999년 12월호 87페이지 건축계소식 기사 중

「—까치건축은 영종도국제공항 설계에 참가한 법건축, 희림건축, 정림건축, 삼우설계가 공동으로 투자한 회사로—」를 「—까치건축은 영종도국제공항 설계에 참가한 법건축, 희림건축, 정림건축, 원도시가 공동으로 투자한 회사로—」로 정정합니다.

## 현상설계, 목포대학교 정보종합센터

당선에 단우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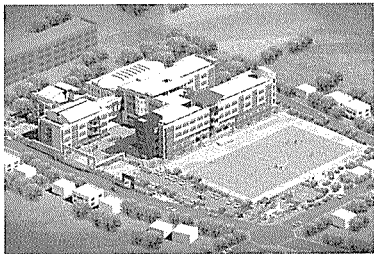


목포대학교는 첨단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정보종합센터 신축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최종 6개 업체가 참여한 결과 당선작에 (주)단우건축사무소(이승권, 최병철)안을 선정, 발표했다.

우수작에는 (주)건축사사무소 단목(김성우, 노태학)+(주)가야건축사사무소(최문규)+김영서 안이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목포대학교 캠퍼스안의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 대학본부로 둘러싸인 잔디광장이 대지로 주어졌으며, 중앙도서관 3, 4층을 신축하는 정보종합센터의 4, 5층과 연결하여 도서열람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게 된 이번 설계경기는 도서관과의 3~5미터의 레벨차이와 북서향으로 트인 대지에 건물과 실의 배치 등을 최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주 관건이 되었다. 총 사업비 95억여원이 들어갈 이 프로젝트는 올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8월중 착공에 들어가 2002년 완공될 예정이다.

## 현상설계, 대구수성초등학교

당선에 대상건축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은 대구수성초등학교의 기존교사에 현대식 교육과정과 지역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초등학교 현대화 재개발 시범학교' 현상설계를 실시하여 총 11개팀이 참가하여 심사결과 대상건축사사무소(박종석)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지난해 11월 26일 발표했다. 우수작에는 (주)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홍호용)안이, 가작에는 (주)합동건축사사무소(윤태식)안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는 이연수(대구 동부교육청), 강병근(건국대), 김도연(대구 교육청), 김석만(금오공과대), 김승제(광운대), 김영태(영남대), 김종영(계명대), 박영기(연세대), 이창화(대구수성초등학교 교장), 정의용(영남대), 최무혁(경북대) 합진식(대구대)씨가 맡았다.

## 시간안내

대덕의 전통건축

지속가능한 도시

### ◇대덕의 전통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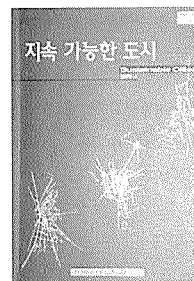
대덕문화원은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되어버린 송촌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건축물을 정리하여 '대덕의 전통건축'을 발간했다. 이 책은 건축사적인 평가가 높았던 '동춘당'을 비롯하여 '제월당' '송용역가옥' 등 현재 회덕과 대덕의 옛 건축물들을 단행본으로 볼 수 있으며, '개발과 보존'이라는 명제에 대한 이 시대 우리들의 도시개발 해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건축 부문을 집필한 이왕기(목원대 건축과) 교수는 "도시란 과거의 추억과 미래의 희망이 공존할 때 건강한 도시가 되는 것이다. 과거의 추억은 그 도시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도시의 인상을 심어준다. 미래의 희망이란 도시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때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현재의 개발방식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이 책자가 전통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 불씨가 되고, 나아가 역사적 문화환경보존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표하고 있다. 수록되어 있는 전통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회덕향교/동춘당/동춘선생고택/쌍청당/원일당/송애당/송용역가옥/제월당 및 옥오재/민평기가옥/비래암/옥류각/취백정/은진송씨 정려각/이시직공 정려각/고흥유씨 정려각/어사홍원모 영세불망비각/회덕현 관아기록과 자료/충남지방의 관아자료/충남 현존 관아 등

대덕문화원 발행(042-627-7517)



### ◇지속 가능한 도시

새 천년의 화두인 '지속 가능 (Sustainable)'에 대한 건축인들의 단상과 토론과 함께 건축설계 과정에



서의 실제로 부딪치는 해석상의 문제를 하나로 모아 책이 엮여졌다. 이 책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건축가들이 각자 혼돈된 이 시대를 질주하면서 자아낸 일련의 드라마"를 돌이켜 보고, "새로운 미학으로써 미래 도시만들기"를 위해 "도시와 건축이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책임을 통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건축에 대한 흥미진진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권두좌담 "질서와 여백이 살아있는 도시 만들기"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들을 모색해 보고 있으며,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의 단편들"을 모은 글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한 미래상과 현재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들을 모았다. 또한 "미완의 작업에 투영된 도시의 해석"에서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도시와 건축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계획안과 그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축설계 과정의 구상과 현실"은 실제 설계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건축모임인 옹마루(회장 손기찬)의 '옹마루6집'으로 기획되어 발간됐다.

옹마루모임지음/176쪽/7천원/(주)간향미디어 발행(02-2637-3890)